

“마한 최대 분구묘 축조기술 확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2차 발굴조사 현장 공개

고창군은 '2024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2차 발굴조사 성과'를 지난 29일 오후 공개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의 학술조사는 2019년 분정부(墳頂部)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3호분의 규모는 동서 약 70m, 남북 약 80m로 현재까지 알려진 마한의 분구묘 중 가장 크다.

발굴조사는 서사면 일부에 대해 실시하여 분구의 축조기술과 통나무관, 옹관묘, 주저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번 2차 발굴조사는 3호분의 축조 방법 및 시기, 매장주체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남쪽사면부에 대해 진행했다.

△봉덕리 고분군 3호분 발굴성과
3호분의 발굴조사 결과, 2차례 이상 분구를 축조하였던 것을 확인했다. 1차 분구는 기원후 3~4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자연 구릉에 낮은 분구묘로 확인된다. 분구 내부에는 토광묘 및 옹관묘 등을 매장했으며, 도랑(甗溝)을 굴착했다.

2차 분구는 5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고분을 높게 쌓았는데 분구의 중앙을 격자망으로 회백색, 흑갈색의 점토 덩어리로 구축하여 쌓은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분구는 약



고창군은 '2024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2차 발굴조사 성과'를 지난 29일 오후 공개했다.

2.5~3m 내외의 폭으로 격자망 구축을 한 다음 점토덩어리를 구축 경계로 삼고 약 4m 내외로 수직으로 쌓아 올려 대형의 고분을 축조하였다. 또한, 분구 둘레는 도랑(甗溝)을 굴착하여 고분의 경계로 하였으며, 분구 끝자락에는 토기 1~3점씩 매납한 것이 확인되었다.

△봉덕리 고분군 3호분 축조시기와 의미
3호분의 1차 분구 축조 시기는 토광묘에서 출토된 이종구연호, 양이부호 등의 토기를 볼 때, 기원후 3~4세기로 판단된다. 2차 분구 축조 시기는 성토과정에서 확인된 토기편과 주구 안쪽에서 매납된 호형토기 및 장경호 등을 통해 기원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3호분의 발굴조사 결과 분구가 거대화되는 과정에서의 무덤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호분의 성과와 더불어 마한 분구묘 중 가장 큰 규모인 3호분의 운영 기간 등으로 볼 때 마한 50여 소국 중 '모로비리국'의 중심 세력의 묘역임을 분명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의 2차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 최대 분구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적 확대 지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하 마을의 사계: 여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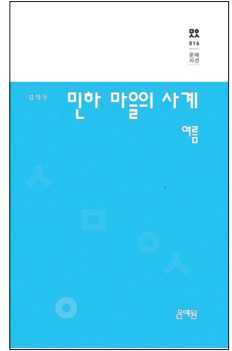
김익두 시인, 자연 생태 담은 연작 시집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김익두 시인이 자연의 생태를 담은 연작 시집인 '민하 마을의 사계: 여름'을 출간했다. 이 시집은 지난해 9월 발간된 '민하 마을의 사계: 봄'에 이은 두 번째 연작시집이다. 이번 '여름 편' 시집은 지난해의 '봄 편'에 이어 1년 만에 나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나온 '민하 마을의 사계: 봄'에 실린 168편 269쪽에 달하는 방대한 시들에 이어, 이번 시집에도 154편 335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시들이 실렸다.

특히 이번 시집에는 시인이 정음 산외면 정랑리 민하 마을에 들어가 홀로 살면서 매일매일 직접 체험한 시적 체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의 일기 형식의 시들이 담겼다. 시편들은 지난 번 '봄 편'보다 14편이 적은데도 쪽수가 훨씬 늘었다.

이 시집의 서문 '시인의 말'에서 김 시인은 "이 시집이 정음 산외면 정랑리 민하 마을에서 매일 몸소 체험하고 산 생활한 산촌 생활의 기록"이라면서 "살아 있다는 것, 모든 들짐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 있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이 작은 시집을, 아직 이 세상에 함께 살아 있는 당신께 바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시집의 말미에서 호평탁 평론가는 "이 시집은 '일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기에는 허위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하루하루의 기록은 모두 진실이다. 나는 이 시인의 이 '진실'을 보며 큰 감동과 함께 이 시인을 다시 보게 됐다. 나는 그와 알고 가까이 지낸 지 오래다. 그러나 민하 마을에서 혼자 지내는 그의 모습을 대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이제 끊임없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이며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우리를 것이다"라고 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종묘제례악' 공연 예매 시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31일 오후 1시부터 인터파크티켓에서 국립국악원과 공동주관을 통해 전주에서 첫선을 보이는 '종묘제례악' 공연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송년특별공연으로 펼쳐지는 '종묘제례악'은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으로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자로 선정,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소속 정악단, 무용단이 무대에 오르며, 김영은 前 국립국악원장의 해설을 통해 종묘제례의 절차와 제례악에 쓰

이는 악기, 음악, 무용의 의미, 그리고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가치를 한층 더 깊고 넓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공연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는 모악당 로비에서 로부터 출주는 '일부'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티켓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R석 2만 원, S석 1만 원이다.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에게는 50%의 할인이 적용되며,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유료 공연 관람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등 3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공연 및 티켓 관련 자세한 문의를 인터파크티켓(1544-1555) 또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나 전화(063-232-839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롯데몰 군산점 맞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30일 롯데몰 군산점(점장 양남근)과 문화예술·관광서비스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롯데몰 인프라 공간을 통한 공연·전시 협업 프로그램 개발 △관광 분야 사업 연계 통한 고객 유입 증대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및 ESG 활동 연계 △문화예술·관광인 및 인직원 복지 증진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인과 재단 임직원이 롯데몰에서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예술·관광 발전 기여 유공자 발굴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예술·관광상 수상 후보자 내달 15일까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1월 15일까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예술·관광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관광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30일 재단에 따르면 접수된 후보자 중에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총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2025년 1월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장과 더불어 공적 아카이브 전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3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업)다. 본인 및 단체의 추천은 불가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단체, 지자체, 기관 또는 만 19세 이상 개인 등 제3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



아 방문접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h1112@jct.or.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11월 태권도원 방문객 이벤트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11월 한 달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을 맞아 입장료 할인과 SNS 이벤트 등 태권도원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일부터 태권도원 입장료를

'50% 할인' 하고 '태권도원 방문 인증' 이벤트도 운영한다. 11월 16일과 17일에 진행되는 '태권도원 방문 인증 이벤트'는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작성·업로드하고 태권도원 SNS를 팔로우 하면 된다. 방문 인증 이벤트 참가자는 '태권도원 캐릭터 피규어 3종 세트'를, 팔로우 이벤트 참가자는 '태권도원 키링'을 선착순으로 총 500명에게 전달한다. /무주=전문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愛 희망을, 노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연금사업**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홈페이지 www.fbo.or.kr

상담/문의 1577-7770

농림축산식품부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